

근거이론을 이용한 새터민 어머니의 양육경험의 변화과정

박현정 · 김윤수 · 박호란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Grounded Theory Approach to Transition Process of Parenting Experience among Mothers Defecting from North Korean

Hyun-Jeong Park, Yun-Soo Kim, Ho-Ran Park

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Purpose: The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parenting experience of mothers who have defected from North Korean. **Methods:** Nineteen mother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n were recruited in Hanawon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ace-to-face interviews. Grounded theory methodology developed by Strauss and Corbin (1998) was adapted for theoretical sampling and analysis. Interviews were recorded with consent and transcribed verbatim. **Results:** The core category was discovered to be 'pursuing positive parenting'. Phenomenon was identified as 'acting out of frustration' and this series of processes was categorized as having four stages: 'harsh reality', 'moving forward', 'seeking transition', and 'internalization'.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ir parenting experiences were in a transition process and, thus, it is critical to develop positive parenting intervention programs as a way to promote the empowerment of these mothers in parenting to help them support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

Key words: Parenting, Mother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서론

연구의 필요성

새터민이란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정착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새로운 터전을 찾아온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Report of North Korean refugees, 2008).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새터민의 수는 2000년을 기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그 수가 16,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2009 Report for current status of economic activity in North Korean Defectors, 2009). 새터민들의 탈북 이유는 초기에는 주로 기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형이었던 것이었으나(Park, Cho, & Yoon, 2009), 점차 삶의 질을 지향하며 자녀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가족단위로 입국하는 유형으로 변화되고 있다.

새터민 중 여성의 비율은 2000년 이후 50%를 넘어 현재에는 80%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20-40대의 여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의 비율도 현재 전체 새터민의 15%를 넘어서고 있다(2009 Report for current status of economic activity in North Korean Defectors, 2009). 새터민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애쓰고 있고(Kim & Lee, 2009), 20-40대 이탈 여성 중 안전상의 이유로 자녀를 데리고 오지 못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남한으로 입국하게 될 탈북 아동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이들이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특히 아동의 경우 대부분의 성장 발달을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면서 이후 주류 집단으로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에 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바이다.

주요어: 양육, 북한, 근거이론

*본 논문은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의 일부 지원이 있었음.

*The authors wish to acknowledge the financial support fro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Nursing.

Address reprint requests to: Ho-Ran Park

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505 Banpo-dong, Seocho-gu, Seoul 137-701, Korea
Tel: 82-2-2258-7406 Fax: 82-2-2258-7772 E-mail: hrpark@catholic.ac.kr

투고일: 2010년 11월 18일 / 1차수정: 2010년 11월 29일 / 게재확정일: 2010년 12월 3일

부모는 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 발달을 하고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로부터 대처하는 방법을 훈육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부모의 행동이나 양육태도에 따라 아동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Caldwell, Rafferty, Reischl, De Loney, & Brooks, 2010; Vieno, Nation, Pastore, & Santinello, 2009). 부모의 올바른 양육 형태는 아동의 감정적인 안녕과 아동의 기질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동 행태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Jung & Ahn, 2009; Moon, 2009). 그러나 삶의 대부분을 보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하여 온 부모들은 본인이 겪은 심리적, 신체적 상처, 가족 구성원의 죽음 또는 이별의 경험과 언어와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될 뿐 아니라(Lewig, Arney, & Salveron, 2009; Robertson et al., 2006), 우울증이나 외상 후 장애, 불안 등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Rho & Won, 2009).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상황에 처한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게 되는 경우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Spencer & Le, 2006).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에 온 부모들의 경우 북한과 남한이 과거에 한 국가였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부장적, 부자 중심의 서열적 질서, 유교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다른 나라에 비해 문화적 적응이 수월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문화적 적응이란 다양한 측면으로 설명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언어의 소통이 가능하고 각자 중시하는 가치가 공유되며 터를 잡은 나라에서 존재감을 인식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Schwartz, Unger, Zambonga, & Szapocznik, 2010). 남북한 간의 문화적 동질성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남북한은 분단 국가로서 6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이질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오히려 동질적인 부분이 두 나라 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드러내며 비교가 가능해지기에 심리적으로 더욱 큰 불편감과 적응에 대한 위축감이 들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양육에 있어서도 확연히 드러날 수 있다. 정치적 이념이 다르고 문화적 환경이 다른 곳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였고, 이탈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입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또한 북한 이탈 가족의 대부분이 한 부모 가족으로(Lee, Park, Park, & Park, 2010; Lee & Sung, 2001), 북한에서와 마찬가지로 집안의 가장이 되어 경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는가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새터민 아동의 경우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이들이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힘든 이탈 과정을 겪은 후 만성적인 두통 및 위장관계 각종 신체 증상 및 정신적 문제를 호소한다는 보고가 있었다(Jeon, Yu, Cho, & Eom, 2008; Kim, 2005). 더불어, 외국의 난민 아동들의 건강상태에 대해 연구한 문헌에서도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Sheikh et al., 2010; Vaage et al., 2010)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것

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이에 새터민 아동들이 남한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새터민 어머니가 경험한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양육태도 변화의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새터민 어머니에게 적합한 양육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새터민 어머니들이 지금까지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겪은 경험의 실체를 파악함으로써 양육경험의 변화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Strauss와 Corbin (1998)의 근거 이론적 연구방법을 토대로 의미와 경험의 구조가 완성될 때까지 이론적 표집, 심층 면담을 통한 자료수집과 탈북 어머니의 아동 양육 경험에 대한 자료 분석을 반복하여 이들의 아동 양육에 대한 경험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남한에 입국한 북한 이탈민이 12주간 합숙하면서 적용 교육을 받는 기관인 하나원에서 학령기 자녀와 함께 8주 이상 같이 생활한 새터민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새터민 어머니가 남한에서 최소한의 양육경험을 한 후 양육의 변화와 관련된 개념을 얻어내기 위함이었으며 면담은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르는 시점인 19명의 참여자와 면담한 후에 멈추었다. 우선 면담 전에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참여를 원하는 경우 서면 동의를 받았다. 대상자들은 8세에서 14세의 아동과 함께 입국하여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이 중 9명은 북한에서 제3국을 통해 왔고, 10명은 중국에서 장기 체류 후에 입국하였다. 이들 중 4명만이 남편을 동반하여 같이 왔고, 3명은 이미 남편이 한국에서 정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1명은 추후 남편도 한국으로 올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외 11명은 사별 또는 이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연구자 훈련 과정

면담을 시행한 연구자는 질적연구, 간호철학 등 질적연구 방법론을 습득하기 위한 학점을 이수하였고, 질적연구방법론 세미나 및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질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질적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왔다. 또한 질적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에 수차례 참여함과 동시에 질적연구 전문가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면담 훈련과정을 거쳤다. 자료에서 나타난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 2명의 연구자가 독자적으로 분석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점에 도달하였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Participant	Age (year)	Gender (Child)	Age (Child, year)	Husband status	Escaping route
1	Late 30's	Girl	10	In Korea	Directly through the 3rd country
2	Early 30's	Girl	8	Accompanied	Directly through the 3rd country
3	Mid 30's	Girl	11	Deceased	After long stay in China
4	Middle 30's	Girl	11	In North Korea (Plan to come to South Korea next year)	Directly through the 3rd country
5	Early 30's	Girl	14	Deceased	Directly through the 3rd country
6	Late 30's	Boy	10	In China	After long stay in China
7	Late 30's	Boy	10	Deceased	After long stay in China
8	Early 40's	Girl	8	Accompanied	Directly through the 3rd country
9	Late 30's	Girl	11	In North Korea	After long stay in China
10	Late 30's	Boy	10	In Korea but separated	Directly through the 3rd country
11	Late 30's	Girl	14	Divorced	After long stay in China
12	Late 30's	Girl	13	Divorced	After long stay in China
13	Late 30's	Boy	11	Accompanied	Directly through the 3rd country
14	Mid 40's	Boy	10	In China	After long stay in China
15	Late 30's	Boy	10	Deceased	After long stay in China
16	Early 40's	Boy	9	In Korea	After long stay in China
17	Late 30's	Boy	14	In China	After long stay in China
18	Early 30's	Girl	10	Accompanied	Directly through the 3rd country
19	40	Girl	9	Deceased	Directly through the 3rd country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면담 시 질문은 반구조적이고 개방적인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대상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면담초기에 대상자가 남한으로 오게 된 과정 및 배경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면담자가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상자가 본인의 얘기를 하는 도중에 자연스럽게 연구 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기본 질문은 ‘아이를 키우면서 한 경험은 어떠한가?’이며, 이를 파악하기 위한 주요 면담 질문은 대상자가 “지금까지 아이를 키운 양육방식에 대해 얘기해 주십시오.”, “한국에 입국한 뒤 양육방식에 변화가 있으셨는지요?” 등으로 연구자의 경험이나 선입견을 최소화하면서 참여자가 스스로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며 경청하였다. 면담은 하나월 내에 있는 하나 의원의 진료실 중 조용하며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졌으며 1회 면담 시간은 약 5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은 1회에서 2회 이루어졌다. 면담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녹음된 내용은 면담 종료 후 즉시 필사하였다.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 대상자와의 면담에 반영되어 다른 대상자에게서도 같은 개념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필사된 면담내용은 Straus와 Corbin (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에서 적용되는 분석방법에 의거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두 명의 연구자가 면담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을 전체적으로 읽어 흐름을 파악한 후 한 문장씩 검토하여 개념화하였고 개발된 개념들 사이의 유사점, 차이점을 토대로 범주화하는 개방코딩을 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는 개방코딩을 통해 추출된 범주들 간의 관계를 구조화하면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상황적 맥락, 중재적 상황, 상호작용전략, 결과를 분석하였고, 각 범주들을 연결하고자 축코딩을 하여 패러다임 모형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범주와 연결되어 있는 핵심범주를 찾아내었고 핵심범주를 축으로 상황적 맥락의 틀에서 범주 간의 관계를 분석하며 상황적 변화에서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에 초점을 두는 과정분석을 하였다(Strauss & Corbin, 1998). 두 연구자의 분석에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서로 합의점에 이를 때까지 토론을 하였고, 토론한 내용은 대상자와의 면담에서 재확인하였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윤리 심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경우 서면동의를 받은 후 시행되었다. 대상자에게 연구와 관련되어 밝혀진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참여자의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도중 언제든지 그만두기를 원하면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렸다. 또한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사례품을 제공하였다.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두 명의 연구자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며 면담을 하였으며, 바로 참여자와 추출된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

연구 결과

새터민 어머니의 양육경험 전환의 변화 과정

참여자들과의 면담 내용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면서 수차례의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얻은 개념은 22개였으며 개념들을 바탕으로 17개의 범주로 범주화하였다. 축코딩을 통하여 개념들을 재조합한 결과는 중심현상, 인과적 조건, 상황적 맥락, 상호작용전략, 결과 간의 관계성과 같은 패러다임으로 나타났다(Figure 1).

중심 현상

중심현상은 참여자들이 처해진 문제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답으로 본 연구에서는 ‘역할장애’, ‘남편의 일탈’, ‘낙인’이었다. 이 문제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상들의 중심현상은 ‘좌절감의 표출’이었다. 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요만한 거에 제 성질에 때릴 때도 있어요.... 남편한테 화난 것 아이에게 풀고 했는데.(참여자 3). 과격해요.. 일단 잘못 했다 하면 빗자루로 엉덩이 때리고 그랬어요(참여자 6). 우리 아이가 벌써 잘 못했다 하면 내 인상부터 봐요... 우리 아이는 내 인상만 보며 자기 할 것 다 해야 한다는 그것으로 살았어요(참여자 7). 짜증나고 하니까 마음이 항상 우울했으니까는..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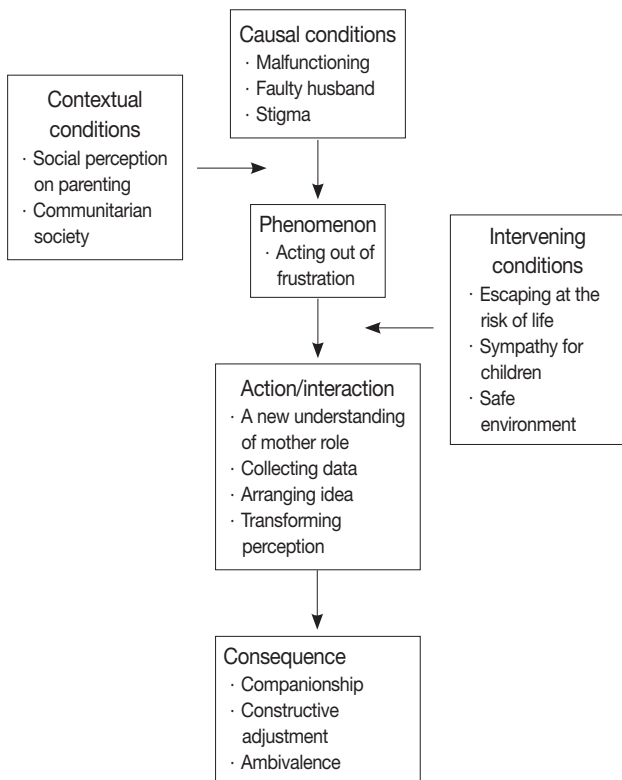


Figure 1. Paradigm of parenting transition among North Korean defector mothers.

들이 조금만 잘 못해도 내 성질에 자꾸 짜증낸다 말입니다. 어떤 때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해도 환경이 너무 이렇다 보니(참여자 14). 저는 아이를 영 무섭게 대하거든요. 제가 남편에 대한 그런 감정이요. 가만 보면 남편에 대한 감정이 막 살아나거든요. 그저 네 아버지를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그 생각밖에 안 나더군요(참여자 17).”

인과적 조건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들로 “왜, 어떻게 그 사람이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했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본 연구에서의 인과적 조건은 ‘역할장애’, ‘남편의 일탈’, ‘낙인’이었다.

역할장애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어머니의 역할이 힘들어지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고, 아이의 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으며, 또한 불법이지만 생존을 위해 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아이와 함께 지내지 못했다. 이에 대한 참여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내가 그렇게 돈을 벌다 보니까 ○○을 공부를 못 시켰다 말입니다(참여자5). 아이도 부모가 행복하게 산 걸 본적이 없어요(참여자 3). 한 달에 한 보름 나가있었어요... 자꾸 장사하고 다니니까 아이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드물어요... 내가 벌어야만 집이 사니까(참여자 4). 교육을 못 받았어요... 부모로서의 교육이 없잖아요(참여자 6). 엄마들은 무섭게 다루었어요... 생활이 팍팍하니까 애들이 집에 오는 것도 좋아 안하고, 그다음에 생활이 힘들니까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옆에 있고 하면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참여자 8).”

남편의 일탈

북한에서는 남편을 ‘세대주’라 부르고 있었다.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가부장적인 이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외도를 하여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들은 아이를 편안하게 대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남편이) 가정적이지 못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예요. 그나마 아이가 있어 꼭 참고 살았어요(참여자 3). 남편이 술을 마시는데, 1년에 360날을 만취되는 날이란 말입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막 이렇게 하니까(참여자 5). (중국)신랑이 술 마시고 북한 여자라는 것으로 해서 자꾸 구박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좀 힘들었어요(참여자 6).”

낙인

참여자의 불법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해, 그리고 가족 중에 공산주의 체제에 역행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남겨진 모든 가족들은 북한에서 감시를 받았고, 아이들은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발전할 수 있는 기회에 제재가 가해지게 되었다. 또한 중국에서는 북한 여성이 북한에서 아이를 데리고 간 경우 정부에 아이가 등록이 되지 않아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가 중국에 갔다는 걸로 해서 공부를 잘해도 학습에서 간부도 하지 못하고..대학 추천이 없습니다(추천을 못 받습니다) (참여자 1). (불법행위를 하다 보니) 저희는 심장이 조마조마 해서 항상 마음 놓고 못살아요(참여자4). 아이가 호구, 신분증도 없이... 학교를 다니질 못하는데요(참여자 9).”

상황적 맥락

본 연구의 중심현상으로 나타난 ‘좌절감의 표출’을 유발시킨 인과적 조건들이 좌절감의 표출로 이어질 때 존재하는 일련의 조건인 상황적 맥락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산주의 체제’로 나타났다.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북한에서 아이를 키울 때 부모는 엄격하고 독재적이며, 잘못을 범했을 때 체벌을 가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는 ‘좌절감의 표출’을 강화시켰다. 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면(어른에게 본인의 의견을 말하면) 틀려먹은 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 큰딸을 저렇게 키웠다고 저게 못쓰게 됐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참여자 1). 체벌은 북한에서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참여자 1). 북한에서는 아이를 무조건 달군단 말입니다(참여자 4). 엄격하게 자라야 한다. 하라는 대로 하고 무섭게 할 때는 무섭게 하고(참여자 10). 북한에서는 아무 식이고 명치로 때려야지만이 아이들이 말 듣는 것으로 유행되어 있다 말이에요(참여자 19).”

공산주의 체제

참여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는 경제적인 상황을 악화시키고,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며 권력에 복종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여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에게 ‘좌절감의 표출’을 하게 하였다. 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 사실과 다른 것이 너무 많거든요.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자꾸만 반감이 생기는 거죠. 직장에 나가봐도 배급하나 주는 것도 없고... 출근을 안 하면 법에 또 데려가서 6개월씩 단련을 시켜요. 단련을 받는다는 것은 벌을 받는다는 것이고요(참여자 4). 북한에서는 무작정 우기고, 완력이 썰면 법에서도 이긴단 말입니다. 사람이 뻔히 잘못했어도, 힘이 이기게 된다 말입니다(참여자 5).”

중재적 상황

중심현상으로 나타난 ‘좌절감의 표출’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행동/상호 작용적 전략을 촉진하거나 제한하는 요인들로는 ‘죽음을 무릅쓴 이탈과정’, ‘아이에 대한 연민’, ‘안전된 환경’이 나타났다.

죽음을 무릅쓴 이탈 과정

참여자들은 ‘좌절감의 폭발’이라는 부정적인 양육행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적용하게 되었는데, 이를 위한 일차적인 중재로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과 중국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안전하다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둘 다 데리고 오다 다 죽이면 어찌겠나..데리고 떠날 용기가 안 납니다. 담보가 없는 그런 길이니깐, 오다가 사고가 나면, 이 어린 것까지.. 북한에 그냥 뒤도 살 사람은 살겠지만 그런 생각 안 든단 말입니다. 내 죽는 시간까지라도 데려다가 밥이라도 먹고, 공부라도 시켜야...(참여자 5). 열차에 조선족이 올랐다고 공안이 수색이 들어와 3번 검사 당했어요... 화장실 들어가 숨고, 거기서 막 죽는 거, 사자가 붙잡히면 끝이잖아요... 그 기차에서 내렸다 올라갔다(참여자 6). 뭐 내가 여기서 잡히지 않고 죽지 않으면 된다 이런 각오지요.. 고생이야 무슨 생각 아이 하지요. 그리고 몇 날 몇 일 잠을 못 자지요(참여자 14).”

아이에 대한 연민

아이들에게 그동안 나타난 ‘좌절감의 표출’에 대한 후회와 더불어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연민의 표현은 ‘좌절감의 표출’로 얼룩진 양육에 대한 새로운 고찰의 시작을 알리며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도 외롭죠. 아버지하고 떨어져 있지, 사촌들하고도 떨어져 있지(참여자 4). 아마 친오빠가 이 아이를 많이 때리기도 하고 그랬나봐요... 살면서도 둘이 상처가 많이 남았던 거 같아요(참여자 11). 애가 성장이 멈췄는지 제가 그 때 7살 때 헤어지던 그 키 그대로 나이만 먹었어요. 키가 얼마나 작은지.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고, 대신 내가 못 해준 것만큼 해 주느라 노력도 많이 하고(참여자 12). (내가) 농사질하는 것이 그저 여가다 맡기고, 저기다 맡기고.. 아이가 불쌍하게 자랐어요(참여

자 16).”

안정된 환경

참여자들은 불안정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지내다가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을 접하면서 점차 여유를 찾게 되고 아이의 모습도 긍정적으로 비추어지기 시작하여 아이의 양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무슨 돈을 벌거나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 자체도 달라졌다 하는 것이 생겼어요... 아이가 말을 남한 식으로 빨리 배우는 것도 귀엽고요(참여자 8). 여기 와서 5킬로 불었으니까... 아이들은 저기 나가서 초등학교 다니니까 저기는 어째 좋은지 나가서 놀기도 하고 어쨌든 아이들은 잘 늙습니다(참여자 13). 내가 여기서 너무 호화롭게 사니까 어렵게 살던 북한 실정도 있어버리는 것 같아요(참여자 19).”

상호작용 전략

중심현상인 ‘좌절감의 표출’에 반응하고 조절, 처리하기 위한 참여자들의 일반적, 의도적인 전략은 ‘어머니 역할의 재인식’, ‘정보 수집하기’, ‘생각 정리하기’, ‘인식의 전환’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역할의 재인식

참여자들이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어렵고 힘든 지난 시절 스스로의 태도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하며,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어머니가 되기 위한 바람의 표현과 결심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떨 때 우리 아이가 소심한 것 보면 내가 아이한테 강요를 많이 해서 아이가 소심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7). 내 성격이 남한테 말 들으며 사는 것 싫고요, 지는 것 싫어해요... 나는 막 승부심이 강한데, 우리 아기가 떨어지면, 내 신경 돌 것 대비해야 하나. 조바심 나요(참여자 7). 애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맥을 힘을 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11). 애들한테 엄마라 할 때는 의지하고 좀 활력 있으면서 지적인... 훌륭한 엄마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걱정돼요(참여자 11). 부모로서 가슴이 아프다 말이에요. 내가 어린 아이한테 너무 가슴 아프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참여자 19).”

정보 수집하기

참여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부족한 양육교육을 배우기 위해 주변의 지인들과 대중매체를 통해 남한의 실정에 대해 듣고 있는 것

로 나타났다.

“(아이들의 솔직한 발언에 대해) 여기서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 시름 놓입니다(참여자 1). 아이를 억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구요. 그건 북한 사람들이 하는 교육이지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는다고요(참여자 7). 한국에 오니까 무작정(아이들의) 배짱을 키워주라 하는데...(참여자 5). (한국 드라마에서) 부모들이 내가 아이들 가르치던 방법하고는 다르더라 말입니다. 엄하게 키우지 않고, 아이들에게 자유를 많이 준다고 봐야 할까?(참여자 13).”

생각 정리하기

참여자들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 어떻게 하면 ‘좌절감의 표출’을 감소시키고 아이들을 위한 양육을 할 수 있을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러한 참여자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남한의 양육 방식과 상황에 대해 그리고 스스로의 양육방식에 대해 분석하고 판단하기 시작하였다.

“내 여기 와서 아이 칭찬하는 것도 배웠지... 어디 아이를 칭찬하는 법을 배웠겠는가. 진짜 아이 교육은 한국 가서 단단히 잘 받으라고..... 아이 교육하는 것 진짜 배울 점이 많다고.... (아이가 엄마에 대한 원망이 많은 것이) 엄마 잘 못 만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참여자 7). 걱정뿐이에요. 애들이 신체적으로 키가 작고 그런 것도 걱정, 애들이 한국 문화를 잘 모르니까 걱정이예요(참여자 11). 애가 저를 좀 어려워하고 떨어져 있어 그런지.. 제가 그렇게 너그러운 성격은 아니구나 그런데 고치려고 해도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참여자 12).”

인식의 전환

참여자들은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토대로 스스로의 양육 태도에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예전에 잘못된 것에 대해 후회를 하며, 추후 스스로 취할 양육의 방향을 정하여 생각과 태도를 바꿔가거나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가 안 된다고 하는데 기어코 우길 경우, 내가 양기를 많이 꺾었지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지(참여자 5). 자유도 많이 풀어 놓아야지만이 자기들 절로 자립도 많이 할 것이고 없는 것도 맛보고...(참여자 13). 여기 와서 석 달 동안 있어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 심정이 들어요. 엄하게 안 키워도 될 것 같아요(참여자 15). (애들이 잘 못하면) 신경이 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멍치지면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참여자 19).”

결과

결과는 행동이나 상호작용에 의해 초래된 결과 또는 성과를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동반자적인 자세’, ‘건설적인 보완’, ‘양가감정’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양육에 대해 지난날의 여러 사건들과 환경적인 요인들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꼈었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남한으로 넘어오는 경험, 이후 아이에게 느끼는 감정과 환경의 변화에서 양육태도의 변화 근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정보의 수집 및 분석과정을 통해 아이와 함께 남한 사회에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한편으로는 아직 마음의 여유가 없어 좌절감이 잔재하고 있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동반자적인 자세

그동안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자세로 아이들을 대해오던 참여자들이 아이를 본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같이 적응을 해야 하는 동반자로서 인식하여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을 아이 취급하지 말고 내가 동등하게 의견을 받아보고 딸의 말이라도 참작해 들어야지 하고 계획합니다(참여자 5). 애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설복하는 식으로 해야겠죠...(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애들이 싫어하는 구나 알게 되었어요(참여자 11). 아이들이 적응력도 빠르고, 엄마가 생각 못한 것도 툭툭 말한다 말이에요. 북한에 가서 광고 하겠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엄마는 저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아이들이 어땠던지 생각이 엄마보다 한 수 더 빠르다(참여자 19).”

건설적인 보완

참여자 대부분은 아동의 양육에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던 상황으로 인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난날 아이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보상심리와 아이에 대한 회생의 결심을 하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변해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우리 딸 하나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어요(참여자 2). 부지런히 벌어서 우리 ○○이가 얼굴에 그늘도 지지 않고, 밝게 그것만 보고 사는 게(참여자 7). 어쨌든 간에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쪽으로 선택하려고요...(참여자 12). 그 때 못 해 준 것을 내가 다 해주려고 하는데...(참여자 16). 애가(그 동안) 고생만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미안해서 아이 하자는 대로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내가 저 아이한테 너무했구나. 이제부터는 아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야겠다(참여자 17). 애를 잘 키워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잘 대해 줘야지요. 북

한에서 못해준 것 다 해주어야지요(참여자 18).”

양가감정

참여자들은 안정된 환경으로 이주해 왔으나 여전히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과 부정적인 정보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해 북한에서 행해왔던 익숙한 형태의 좌절감의 표출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추후 관망하겠다는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아이고, 중국 아이니까 한국 아이들은 왕따 시키는 것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걱정이예요(참여자 7). 한국에서 산다고 해서 더 좋은 길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더 한국에서 지내보며 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해 보려고요(참여자 12). 우리 처지가 자꾸 좋은 것 바라보면 안됩니다. 그 저 내가 여기서 잡히지 않고 밥술도 먹고 그저 내가 성공한 것은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만 해도 그저 그렇게 해야지, 다른 것 생각하지 말아야구합니다. 나날이 갈수록 점점 어떻게 살아 자꾸하나 이 조그만 것을 어떻게 자꾸 나 자꾸 압박감이 든다 말입니다(참여자 14). 아이가 제 멋대로 하는 것이 좀 있다 말입니다... 그 아이가 동무들하고 많이 친해가지고, 동무들하고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통제를 해야지요. 통제를 하면서도 잘 키워서 남부럽지 않게 해 줘야지요(참여자 18).”

핵심범주: 긍정적 양육 추구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양육을 하면서 보여준 ‘좌절감의 표출’은 중재적 상황인 ‘죽음을 무릅쓴 이탈과정’, ‘아이에 대한 연민’, ‘안정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상호작용 전략으로 ‘어머니의 역할의 재인식’, ‘정보 수집하기’, ‘생각 정리하기’, ‘인식의 전환’으로 나타났고 이를 통해 변화해 나가는 참여자들의 핵심범주는 ‘긍정적 양육 추구’로 나타났다. 시간 경과에 따른 좌절감의 표출과 관련된 변화 단계를 4단계로 분류하여, ‘혹독한 현실’, ‘찾아 나서기’, ‘변화 시도’, ‘내재화’로 구분하였다.

참여자들이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온 삶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여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혹독한 현실’로 비춰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를 너그럽게 이해하며 온화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기 힘들었다고 한다. 아동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아동이 잘못했을 때에는 엄격하게 다스리고 신체적인 처벌을 가해야 아동이 바르게 행동하게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참여자들 가운데 팽배해 있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아동이 잘못했을 때 아동에게 무섭게 대하거나 신체적인 처벌을 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본인의 감정 상태에 따라 분노하거나 화가 났을 때 조절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아동들에게 쉽게 그 좌절감

을 표출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은 알고 있으나 순간적인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여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가 지속되어 오고 있었다.

북한의 경제 수준은 남편의 수입이 아닌 아내의 경제적 능력에 의해 좌우가 되고 있었다. 남편의 노동은 당연히 국가에 바쳐져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그에 대한 봉급을 받아왔으나, 나라가 어려워지면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려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 집안의 기본 생활조차 유지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동안 조모가 보살펴주거나, 탁아소에 맡겨지곤 했고, 때때로 학령기의 아동이 더 어린 동생을 돌보는 경우도 있었다. 하루종일 일을 하고 늦은 시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어머니 또한 피곤해서 아이들을 돌볼 틈이 없이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들게 되는 일과가 반복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 주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지나게 되었다.

아이들을 위한 적절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탐색이 이루어지고, 드디어 이 상황을 '벗어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안전 보장이 안 되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같이 남한으로 이주하였고, 하나원이라는 안전한 환경에서 남한의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남한에 정착할 준비를 하게 되었다. 이들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남한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 노출되었고, 남한 아이들의 생활에 대한 많은 부분을 간접적으로 접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인들의 양육태도와 비교하게 되고, 각각의 생각을 정리하여 양육의 태도와 관련된 인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변화된 인식을 '내재화'하여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다짐하는 동반자적인 자세를 갖추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양육의 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양가감정이 솟아나고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의 참여자들로부터 북한에서의 거주기간과 탈북의 과정을 겪고 남한에 와서 살면서 경험한 양육경험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핵심범주는 긍정적인 양육의 추구이었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인 양육의 추구를 위해 변화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날의 생활고와 평탄치 못한 가정생활로 인해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되었고, 본인의 힘든 상황으로 하여금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초래되는 부정적인 감정 즉 좌절감이 아동에게 표출되게 되는데 이는 강압적인 지도, 무관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중재적 상황

과 상호작용 전략의 과정을 거치며 새터민 어머니들이 남한 어머니의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듣고 다시 한 번 본인의 양육태도에 대해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압적인 양육태도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던 어머니들도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교육에 열성인 남한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본인의 태도에 대해 반성해 보고 아이에게 관심을 갖게 되며, 남한에 온 이후로 차츰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서로 관계가 향상되는 것에 대해 만족스러워 하고 있었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 불가피하게 행해왔던 무관심한 태도와 강압적인 태도가 무너지는 과정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새터민 어머니들의 양육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연히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미국으로 이민을 간 1세대 한국인 부모의 경우 미국인의 양육태도를 보고 듣고 나서 아동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보고(Kim & Hong, 2007)와 일치하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몇몇 새터민 어머니의 경우 적극적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본인의 태도를 바꾸어 아이와 동반자적인 태도를 갖기도 하고,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는 건설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어 아동을 양육하는 태도 역시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졌다. 이는 새터민 어머니가 새로운 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아동에게도 정상적인 성장 발달과 더불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몇몇의 새터민 어머니에게서는 양가감정으로 인해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여 이전에 행하는 강압적인 양육형태를 취하며 좌절감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이주민 부모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강압적인 양육형태를 취할 뿐 아니라, 새로운 문화에서의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wig et al., 2009; Nguyen, 2008). 이들이 강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없으나, 베트남 부모들이 아동을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보고된 요인에는 새로운 문화에서 요구하는 부모로서의 역할과 전통적으로 해오던 역할 사이의 갈등, 아동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동 양육에 대한 지지의 부족인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이 베트남에서부터 해오던 양육태도가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대부분의 부모가 강압적인 양육형태를 취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전통적인 방식이기에 지속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같은 맥락을 보인다 할 수 있다. 이는 Nguyen (2008)의 연구에서 부모의 강압적 태도의 정도와 그 부모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정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에 근거해 볼 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베트남 부모와 새터민 어머니들이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새터민 어머니가 탈북 이전에 행하던 양육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이는 남한의 양육 문화에 순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런 문화 차이로 인해 본인 스스로 혼돈스러워

하거나 또는 적응하는 데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부모의 양육태도 영향은 팔레스타인 난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의 방식에 따라 나타나는 아동의 성향을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난민 생활을 하면서 힘든 생활에 처한 어머니가 아동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기보다는 어른의 소유물로 인식하였고 이러한 양육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아동들이 인식한 어머니의 양육형태가 아동의 부정적인 감정과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hmad, 2009). 이는 새터민 어머니가 이탈 이전에 주로 취하던 양육형태와 일치하는 것으로 아동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조사가 요구됨과 동시에 추후 새터민 어머니가 취하는 양육 형태가 추후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막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긍정적인 양육형태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이들을 위한 적절한 중재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양육태도는 부모가 보여주는 온정적인 태도와 통제적인 태도의 수준에 따라 강압적, 권위적, 허용적인 태도로 나타나며(Baumrind, 1967), 후에 Maccoby (1983)에 의해 무관심의 태도가 추가되었다. 이 4가지의 범주 중 새터민 어머니들이 북한에서 보여준 양육태도는 온정적인 태도는 약하며 통제적인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강압적인 양육형태와 온정적인 태도와 통제적인 태도가 모두 저하된 무관심한 양육태도였다. 어느 쪽에서도 온정적인 면은 낮아져 있었고 단지, 통제의 정도에 따라 두 부류로 나뉘고 있었다. 이러한 양육 태도는 남한에 온 이후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북한에서 해 오던 양육 태도를 유지하는 경우 통제적인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압적, 무관심의 양육방식에서 자란 경우 다른 아동에 비해 낮은 자아감을 갖는다는 결과와 강압적인 양육방식이 아동의 강박장애와 관련이 있다는(Martinez & Garcia, 2008; Timpano, Keough, Mahaffey, Schmidt, & Abramowitz, 2010) 보고를 고려할 때 온정적인 면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통제적인 수준을 감소시키는 중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영국에서 보고된 종단적 연구에 의하면 5세 때 강압적인 어머니 아래에서 자란 아동을 추적 조사한 결과 10세에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강압적인 양육형태가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에 걸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Thompson, Hollis, & Richards, 2003). 이에 새터민 어머니들의 양육형태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사정과 개개인에게 적합한 보완 및 교정이 절실히 뿐 아니라, 새터민 아동들의 자존감을 사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하나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아이들에 대한 돌봄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새터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이들이 하나원 내에서 경험한 양육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대상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하여 시간 흐름에 따른 양육 경험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요구되는 바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새터민 어머니의 양육형태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 새터민 어머니는 다양한 삶을 경험한 대상으로 이들의 경험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환경이 이들에게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양육에 대한 사정을 할 때에는 현재 양육형태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총체적인 사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새터민 어머니들에게 적합한 양육태도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양육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새터민 아동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정상적인 성장 발달 과정을 거치고 건강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지해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새터민 어머니들의 지식수준에 적절한 긍정적인 양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새터민 아동들이 인지하는 어머니들의 양육형태 및 자존감의 정도를 조사하고, 아동들의 문제 행동의 정도를 평가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

본 연구는 새터민 어머니들의 아동 양육경험의 변화 과정을 서술하고 탐색함으로써 새터민 어머니에게 필요한 양육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 이탈 주민으로 학령기 아동과 함께 남한으로 입국하여 하나원에 입소한지 8주 이상 된 새터민 어머니 19명을 대상으로 면대면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Strauss와 Corbin (1998)의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양육 경험의 변화 과정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새터민 어머니의 양육경험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핵심 범주는 긍정적인 양육 추구이었으며 17개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인과적 조건: 역할 장애, 남편의 이탈, 낙인, 상황적 맥락: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공산주의 체계, 중심현상: 좌절감의 표출, 중재적 상황: 죽음을 무릅쓴 이탈 과정, 아이에 대한 연민, 안정된 환경, 상호작용전략: 어머니 역할의 재인식, 정보 수집하기, 생각 정리하기, 인식의 전화, 결과: 동반자적인 자세, 건설적인 보완, 양가감정이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북한에서의 일련의 사건들과 사회체계의 제재로 인한 '혹독한 현실'을 경험하였으며, 이로부터 빠져 나오기 위해 남한으로 이탈하는 '찾아나서기'를 경험하였고, 새로운 정보와 환경, 아이에 대한 연민으로 인해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내재화'를 통해 아이를 동반자적인 자세로 바라보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설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양가감정의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이전에 아동과 동화되지 못하며 오랜 기간 지냈으며, 지식의 부족으

로 인해 자녀와 함께 지내고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 익숙하지 못하여 지난날의 상처를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이들에게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과 지식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참고문헌

- Ahmad, I. (2009). *Mothers' parenting styles as predictors of Palestinian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and aggression*. ProQuest Information & Learning, US.
-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43-88.
- Caldwell, C. H., Rafferty, J., Reischl, T. M., De Loney, E. H., & Brooks, C. L. (2010). Enhancing parenting skills among nonresident African American fathers as a strategy for preventing youth risky behavior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5, 17-35 (Electronic).
- Jeon, W. T., Yu, S. E., Cho, Y. A., & Eom, J. S. (2008). Traumatic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Psychiatry Investigation*, 5, 213-220.
- Jung, H. M., & Ahn, M. S. (2009). Relationship between goodness-of-fit for mother-preschool child and parenting stress in moth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 53-61.
- Kim, E., & Hong, S. (2007). First-generation Korean-American parents' perceptions of discipline.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3, 60-68.
- Kim, H. K., & Lee, O. J. (2009).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North Korean refugees. *Nursing Science Quarterly*, 22, 85-88.
- Kim, Y. Y. (2005). An evaluation of the health status of children from North Korea. *Nursing Science*, 17(2), 55-63.
- Lee, I. S., Park, H. R., Park, H. J., & Park, Y. H. (2010).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efficacy, adaptation stress an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mother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6, 360-368.
- Lee, K. Y., & Sung, H. S. (2001). Family relationship among North Korean migrant families in early adaptation: An empirical study centered on family members' percep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47, 243-271.
- Lewig, K., Arney, F., & Salveron, M. (2009). Challenges to parenting in a new culture: Implications for child and family welfare.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33, 324-332.
- Maccoby, E. E.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P.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pp. 1-101) New York, NY: Wiley.
- Martinez, I., & Garcia, J. F. (2008). Internalization of values and self-esteem among Brazilian teenagers from authoritative, indulgent, authoritarian, and neglectful homes. *Adolescence*, 43(169), 13-29.
- Ministry of Unification. (2008). *Report of North Korean refugees*. Seoul: Ministry of Unification.
- Ministry of Unification. (2009). *Report for current status of economic activity in North Korean Defectors*. Seoul: Ministry of Unification.
- Moon, S. (2009). Relationship of peer relationships,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s, self-reported attachment security, to loneliness in upper elementary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 401-408.
- Nguyen, P. V. (2008). Perceptions of Vietnamese fathers' acculturation levels, parenting styles, and mental health outcomes in Vietnamese American adolescent immigrants. *Social Work*, 53, 337-346.
- Pak, S. (2010). The growth status of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6 to 19 years of age. *Economics & Human Biology*, 8, 385-395.
- Park, K., Cho, Y., & Yoon, I. J. (2009). Social inclusion and length of stay as determinants of health among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54, 175-182.
- Rho, I. S., & Won, J. S. (2009). The relations of depression, anxiety, post-traumatic stress, self-esteem, and social adjustment among North Korean refuge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 69-77.
- Robertson, C. L., Halcon, L., Savik, K., Johnson, D., Spring, M., Butcher, J., et al. (2006). Somali and Oromo refugee women: Trauma and associated factor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6, 577-587.
- Schwartz, S. J., Unger, J. B., Zamboanga, B. L., & Szapocznik, J. (2010). Rethinking the concept of acculturation: Implications for theory and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65, 237-251.
- Sheikh, M., Wang, S., Pal, A., MacIntyre, C., Wood, N., & Gunesequera, H. (2011). Vitamin D deficiency in refugee children from conflict zones. *Journal of Immigrant and Minority Health*, 13, 87-93.
- Spencer, J. H., & Le, T. N. (2006). Parent refugee status, immigration stressors, and Southeast Asian youth violence. *Journal of Immigrant and Minority Health*, 8, 359-368.
- Strauss, A. L., & Corbin, J. M.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Thompson, A., Hollis, C., & Richards, D. (2003). Authoritarian parenting attitudes as a risk for conduct problems: Results from a British national cohort study.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2(2), 84-91.
- Timpano, K. R., Keough, M. E., Mahaffey, B., Schmidt, N. B., & Abramowitz, J. (2010). Parenting and obsessive compulsive symptoms: Implications of authoritarian parenting.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24, 151-164.
- Vaage, A. B., Thomsen, P. H., Silove, D., Wentzel-Larsen, T., Van Ta, T., & Hauff, E. (2010). Long-term mental health of Vietnamese refugees in the aftermath of trauma.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96, 122-125.
- Vieno, A., Nation, M., Pastore, M., & Santinello, M. (2009). Parenting and antisocial behavior: A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self-disclosure, parental closeness, parental control, and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45, 1509-1519.